로컬플러스

군산시 임피면 유휴지 보리밭 조성

군산시 임피면은 유휴지에 보리밭을 조성하고 방문객들이 고향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포토존을 설치·운영 한다.

이번에 조성한 청보리밭 면적은 약 4,800㎡이며 보리밭 사잇길로 들어가 추억을 되새길 수 있도록 미로를 조성하고, 허수아비와 바람개비, 하트존과 포토존을 설치해 추억을 담아갈 수 있도록 조성했다. 해묵은 공한지를 활용한 보리밭 조성으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해충 서식지 차단과 소출되는 농산물로 이웃 나눔의 기회를 마련하는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군산=문정곤 기자

원광대 지역발전연구소 16일 세미나

원광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는 오는 16일 오후 1시 30분부터 대학 본관 4층 회의실에서 봄철 세미나를 개최한다.

'디지털 시대, 독서 수요창출을 위한 미디어 활용 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세미나는 1부에서 쓰쿠바기술대학 류현국 교수가 '활판인쇄에서 전자출판의 역사적 변천과 한글 타이포그라피'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펼친다.

2부 학술회의에서는 '독서 수요창출을 위한 미디어 활용 방안',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독서활동 현황과 특성' 등 2개 주제의 발제자로 이완수 교수와 신명환 강사가 각각 나서고, 성지호 JTV 상무, 이병문 전주KBS 국장, 송인호 전주MBC 국장, 오선경 성공독서코칭센터 대표, 이보원 전북도민일보 국장, 임성관 휴독서치료연구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나운2동 통장단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복지허브화 선도지역인 군산시 나운2동은 통장단으로 구성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을 시작으로 오는 6월까지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에 나선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란 읍면동이 중심이 되어 민관협력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공적부조와 민간지원 등을 연계해 개개인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번에 위촉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나운2동 통장단으로 구성돼 지역주민의 사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어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중국방문 해외기업유치 나서

중국최대 LED생산기업 KONKA Green Light 방문 3,200억원 투자유치 확인

정헌율 익산시장을 비롯한 조규대 익산시의회의장, 김영배 전라북도 도의회 의장 및 도·시 관계공무원, 업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기업유치단이 5월10일~12일까지 2박3일간 중국 안휘성에서 기업유치 활동을 펼쳤다.

정헌율 익산시장을 비롯한 조규대 익산시의회의장, 김영배 전라북도 도의회 의장 및 도·시 관계공무원, 업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기업유치단이 5월10일~12일까지 2박3일간 중국 안휘성에서 기업유치 활동을 펼쳤다.

정헌율 익산시장을 비롯한 조규대 익산시의회의장, 김영배 전라북도 도의회 의장 및 도·시 관계공무원, 업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기업유치단이 5월10일~12일까지 2박3일간 중국 안휘성에서 기업유치 활동을 펼쳤다.

정헌율 익산시장을 비롯한 조규대 익산시의회의장, 김영배 전라북도 도의회 의장 및 도·시 관계공무원, 업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기업유치단이 5월10일~12일까지 2박3일간 중국 안휘성에서 기업유치 활동을 펼쳤다.

KONKA Green Light그룹 진광우 회장은 기업유치에 적극적인 정 시장 일행의 의지를 보고, 잠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던 익산합열농공단지의 LED 생산공장과 ESS 테스트베드단지 조성에 3,200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시는 LED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2013년부터 합열읍에 조성중인 농공단지에 올해 상반기부터 2019년 말까지 3,200억원 규모의 중국자본을 투자유치해 합열농공단지 전체(25만1천㎡)에 LED제품을 제조하는 LED생산단지와, ESS테스트베드단지를 건립하기로 중국의 KONKA Green Light 그룹, CCIEC그룹과 MOU를 체결한 바 있다.

KONKA Green Light는 올해 상반기에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을 마치고 행정절차가 완료 되는대로 오는 9월에 공장을 착공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4월13일 취임한 정 시장은 올해 시정운영 방침으로 산업 활력 경제도시 조성을 제시하고, 그 첫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익산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전담팀을 배치, 인허가는 물론 공장건설, 향후 마케팅 지원등 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지원을 시스템화 하겠다"는 강한 믿음을 주어 진광우 회장으로부터 익산투자의 확신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해망동 산 비탈면 붕괴사고 빠른 응급복구

우기철 대비 긴급 낙석방지책 이달중 설치 계획…내년 국비 사업 반영 대대적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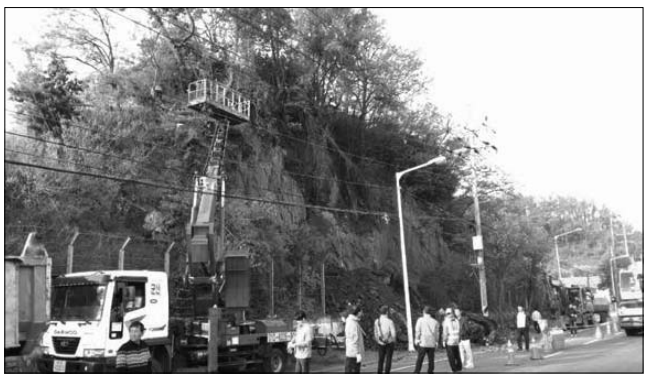
군산시가 산 비탈면 붕괴사고에 발빠른 대응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지난 7일 새벽 1시경 성원상떼빌아파트 인근 해망동 산 비탈면에서 낙석과 토사 50㎡정도가 유실돼 편도 2차로 중 1차로가 차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접수받은 군산시는 관련부서 직원 55명과 군산경찰서, 군산소방서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사고수습과 응급복구를 위해 도로에 쓰러진 수목을 즉시 제거했다.

시는 응급복구 중장비 5대를 투입해 비탈면 위험수목, 도로 위 낙석 및 토사 등을 제거하고 안전조치로 마대쌓기 등을 마쳐 저녁 7시경 편도 1차로에 대한 차량통행을 재개했다.

군산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가오는 우기철을 대비 시민의 안전을 위해 긴급 낙석방지책을 5월중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 7일 새벽 1시경 성원상떼빌아파트 인근 해망동 산 비탈면에서 낙석과 토사 50㎡정도가 유실돼 편도 2차로 중 1차로가 차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산 비탈면 붕괴로 발생되는 재해위험 요소인 암반과 토사를 제거하는 등 근원적인 해소로 항구복구를 시행하기 위해 2017년도 급경사지 국비지원 사업에 반영시켜 대대적인 정비를 시행 할 계획이다.

임춘수 군산시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사고지역의 항구복구가 완벽하게 완료될 때까지 일일순찰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익산시 장마철 대비 시내권 하수관로 추가 준설공사

익산시가 장마철을 대비해 오는 6월까지 시내권 일원 주요간선도로, 침수예상 민원발생지역에서 하수관로 20km에 대한 추가 준설공사를 실시한다.

하수관거 내부에 쌓이는 퇴적토와 침전물들은 장마철과 같은 많은 비가 내리는 경우에 하수흐름에 장애를 일으켜 침수 피해와 냄새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시는 침수피해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 및 상업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시내권을 중심하수도 준설공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계속 할 것"이라며 "우기 전 하수도 준설을 통해 침수피해 예방과 악취차단 등 하수도와 관련된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올해 5월 현재까지 주요 침수 민원발생 예상지역의 하수관로 10km에 대해 준설작업을 완료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경찰서, 20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는 수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는 해마다 4000건 이상 적발될 정도로 횡행하고 있으며 위반자 역시 관련범죄 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산경찰은 지역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가 믿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월 3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이 수산물의 경우 기존 9개 품목에서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3개 품목이 추가되어 12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된 것을 해당업소에 적극 홍보하고 계도할 방침이다.

군산경찰서 김동봉 서장은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지도점검 및 홍보활동을 병행하며 악의적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활동 전개로 깨끗한 수산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공원·녹지등 해충 포충기 10월까지 가동

익산시는 공원과 녹지의 해충을 구제를 위해 모현근린공원 등 공원 50개소에 포충기 113대를 설치 완료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가동에 들어간다.

시에 따르면 봄철 '회양목명나방'부터 여름과 가을 '미국흰불나방'까지 이름 모를 해충으로 인해 시민들이 공원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에 시는 나무 해충을 구제하기 위해 약제 방제를 축소하고, 포충기를 이용한 기계적 방제를 실시하게 됐다. 이 포충기는 곤충이 빛을 보고 모이는 성질인 주광성을 이용하여 포충하는 방식으로 화학성분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직 곤충의 주광성 성질을 이용하여 포집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포집된 해충은 포충 등 하단에 있는 펜이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해충을 분쇄하여 제거한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실전과 동일한 재난대응 도상훈련 실시

군산시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201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기간으로 정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대응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전과 동일한 도상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훈련은 상가와 아파트 등 건물들이 밀집된 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14개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의 상호 공조체계 유지와 골든타임 내 신속한 인명구조와 피해복구 능력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이뤄진다.

이와 함께 16일 오후 2시 민방위 교육장에서는 민방위훈련과 병행해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된다.

17일부터 20일까지는 어린이안전체험관에서 생활안전 및 재난안전체험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생명구호와 안전생활 습관화를 홍보할 계획이다.

/군산=문정곤기자